

IARS SEOUL CONFERENCE 2025

# 화해와 평화를 위한 아시아 종교간 대화

Interfaith Dialogue for Reconciliation in Asia

2025. 07.15 (화) 10:0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14:00 정토사회문화회관 국제회의실



# 화해와 평화를 위한 아시아 종교간 대화

## Interfaith Dialogue for Reconciliation in Asia

목 차 List

기조발제 Keynote Presentation

(한글)	1	아누라 페레라 목사	
		종교간 화합으로 국가를 치유하다: 스리랑카에서의 종교간 화합을 향한 다르마샅티의 여정	5p
	2	범륜스님	
		종교인의 평화실천과 화해의 길: 남북한 및 아시아의 경험을 중심으로	14p
(ENG)	1	Rev. Fr. Anura Perera	
		BRIDGING FAITHS, HEALING NATIONS: Dharmashakthi's Journey Toward Interreligious Harmony in Sri Lanka	22p
	2	Ven.Pomnyun Sunim	
		The Path of Peace Practice and Reconciliation by Religious Leaders: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33p

참가자 소개 Participants	43p
---------------------	-----

# 종교간 화합으로 국가를 치유하다

스리랑카에서의 종교간 화합을 향한 다르마샹티의 여정

아누라 페레라 목사

## I. 30년에 걸친 종교간 인식과 헌신의 성장

### 스리랑카 30년 민족 갈등 해결을 위해 결성

스리랑카는 오랜 세월 오해와 깊이 뿌리내린 불신으로 인해 지속된 민족 갈등에 직면해 왔으며, 이는 다양한 종교 및 민족 공동체 간에 심각한 장벽과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국가를 극도로 양극화시켰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했습니다. 지속적인 갈등은 국제 사회의 감시와 압력을 초래했고, 이는 국가 통합과 주권을 더욱 위태롭게 했습니다. 편협한 극단주의 세력은 종종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폭력을 부추겼으며, 체계적으로 민족 및 종교 간의 조화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유해한 환경은 결국 30년에 걸친 참혹한 내전(1983~2009)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10만 명 이상의 생명이 희생되고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 갈등은 스리랑카 사회에 자기 혁신과 참된 종교간 화합, 국가적 화해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근본적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 불교,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의 비전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됨

이러한 절박한 통합과 치유의 필요성에 응답하여, 다르마샹티는 다양한 종교 전통의 소수이지만 결연한 진보적 성직자들에 의해 용기 있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극도로 분열된 사회에서 진정한 민족 간 및 종교 간의 화합을 증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신앙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불교 승려, 힌두교 사제, 이슬람 학자, 기독교 목회자들은 협력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느꼈고, 평화의 비전을 공유하는 동료들을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우리의 기본 원칙은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이러한 차이들이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거룩한 터전을 조성합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진보적인 종교 지도자들만이 이 획기적인 운동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이 스리랑카 전역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활동에서 필수 요소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 종교 공동체의 공식 대변인이 아닌, 평화에 헌신한 개인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우리의 견해 중 일부는 공식 종교 교리와 일치할 수 있으나, 다른 일부는 개인적인 신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와 공통점을 찾으려는 모든 이들과의 대화와 논의에 열려 있습니다.

## 종교 심포지엄 모임을 위한 기본 규칙

신중한 숙고와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상호 존중과 건설적인 종교 간 대화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1. **비밀 유지** : 모임 내에서 공유된 개인적인 정보와 민감한 발언은 비밀로 유지되며, 외부에서 논의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각 구성원은 자신의 학습 경험과 개인적인 성찰은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2. **차이를 존중하기** : 모든 참가자는 서로 다를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배경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 자체에 대한 존중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말 끊지 않기** : 우리는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생각을 정리하고,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자가 완전히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응답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종교단체도 절대적 진리를 독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4. **동등한 시간과 공간 보장** : 각 참가자는 자신이 발언하는 횟수에 책임을 지며, 누구든지 종교적 혹은 사회적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것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5. **원치 않는 조언 금지** : 참가자들이 자신의 영적 여정에서 무엇이 옳고 적절한지 스스로 결정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나누되, "내가 너라면..."이나 "너는 이렇게 해야 해..." 같은 직접적인 조언은 하지 않습니다.
6. **적극적 경청** : 우리는 각자의 말을 판단 없이 주의 깊게 듣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나 기대하는 말만을 듣기 위한 태도는 지양합니다.
7. **1인칭 화법 사용** : 우리는 "모두가 그렇다고 해요"나 "대부분 그렇다고 느낍니다"와 같은 일반화된 표현 대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낍니다"와 같이 1인칭 표현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교단체의 대변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이야기합니다.
8. **개인 책임** : 우리는 각 회기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또한 말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9. **자발적 공개** :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공개하든 관계없이, 본인이 편안하게 여기는 것만을 공유합니다.
10. **말하지 않을 권리** : 특정 주제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경우, 발언을 "패스"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우리의 공동 경험과 지혜를 통해 점차 수정되고 발전되었으며, 모두의 동의를 통해 채택되었습니다.

## 플뿌리 운동: 자발적 후원과 자원봉사로 운영됨

이 소규모의 헌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의 예배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모든 전통을 존중하는 순환적 신성 공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다르마샹티는 외국 자금이나 대규모 기관의 후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위한 외부 자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구성원들은 이 중요한 평화 구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꺼이 개인 자원을 나누었으며, 그들이 이 사명에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다양한 종교 공동체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진정한 종교 간 조화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민감한 사명에 신중하고 지혜롭게 접근하였으며, 점차적으로 평화롭고 통합된 스리랑카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민사회 지도자들, 사회운동가들, 대학생과 교수들, 교사들, 전문가들, 언론인들을 참여시켰습니다.

## II. 다르마샹티의 대화와 협력 모델

### 예배 장소에서의 정기 종교 심포지엄

우리는 스리랑카 전역의 모든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종교 간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주요 4대 종교 전통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집중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반복되거나 보다 깊은 교류가 필요할 경우 2~3일간의 합숙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종교 지도자들 간에 가깝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의 요구에 하나된 목소리와 협력된 행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형제애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분리와 상호 불신이 만연한 전통 사회에서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성스럽게 설계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종교 전통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솔직하게 탐구함으로써 인식 제고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각 종교의 창시자, 경전, 핵심 교리, 의식과 전례, 문화적 양식과 행동, 사회 구조, 삶과 영성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지속되어 온 오해를 바로잡는 실시간의 우호적인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심포지엄은 다양한 종교 집단 간의 진정한 연대와 지속적인 우정을 구축하는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다양한 분야와 활동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깊은 두려움과 오래된 의심들이 직접적으로 다뤄지고 해소되었으며, 상호 신뢰와 진정한 애정, 공동의 책임 의식이 효과적으로 증진되고 강화되었습니다.

### 깊은 경청과 상호 존중에 집중함

우리의 초기 만남에서 우리는 각 화자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관점, 내면의 영적·인간적 필요까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경청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화자들이 판단이나 조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고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진정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깊고 공감적인 경청의 실천은 참가자들 사이에 강한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진정한 이해를 드러내고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는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촉진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경청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장기적인 종교 간 관계 구축

이는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었는데, 우리 사회는 종교적 다양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지배적 사고방식은 배타적이었습니다. 즉, "나의 종교적 세계관이 모든 현실을 설명하며, 다른 진리는 무효하다"는 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다른 종교 공동체에 대한 고립, 조롱, 고정관념, 그리고 의도적인 분리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는 오직 내 종교에만 존재한다"는 방어적 자세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차이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부정적 평가나 우월감으로 반응하며, 타 종교를 배제하고 비난하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종교는 같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의 세상, 하나의 인류"라는 식으로 종교 간 차이를 과소평가하며 단순화하는 접근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이런 접근은 중요한 차이를 무시하고 진정한 이해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종교 축제와 특별 행사에 통합된 그룹으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참여는 타 종교의 전통과 축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였고, 각 종교의 고유한 가치와 영적 통찰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호적 관계는 신뢰를 강화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영성이 종교 간 만남의 핵심이며, 참가자들의 태도와 시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중심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 III. 사회 평화를 위한 종교 간 실천

### 종교 지도자들과 시민사회, 언론, 학생, 활동가들의 연계

- **교육과 인식 제고**

**의식 고취** : 우리는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불의와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인식을 제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비폭력 교육 프로그램, 갈등 해결 및 전환,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시민 교육에 대한 역량 개발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워크숍** : 우리는 농촌과 도시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열어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갈등 완화 기술, 중재 기술, 종교 간 대화 촉진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옹호 활동과 사회적 실천**

**비폭력 저항** : 우리는 모든 공동체에 유익한 사회·경제적·정치적 개혁을 촉구하는 비폭력 시위와 투쟁, 운동을 주도하고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권위는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위한 캠페인에 도덕적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여 국가 전체가 봉쇄되었을 때, 우리는 즉각 현장에 있었고 영향을 받은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사찰, 교회, 모스크, 힌두 사원 등 종교 시설과 협력하여, 종교와 관계없이 생계를 잃은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지원과 구호를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종교 간 네트워크는 수천 가구에 식량,약품, 필수 물품을 배포했습니다.

**종교적 권리 옹호** : 정부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강제로 화장하도록 명령했을 때, 이는 특히 매장을 종교적 의무로 여기는 무슬림 공동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조직은 이 정부 정책이 과학적 근거가 없고 WHO 지침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동체의 매장 권리를 용기 있게 지지했습니다. 지속적인 옹호 활동을 통해 우리는 종교 관행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민주주의 운동 지지** : 정부의 부정과 부패에 항의하며 젊은이들이 주도한 아라갈라야 (Aragalaya) 시위 당시, 우리는 정의, 민주주의, 건전한 통치를 위해 용기 있게 싸우는 국민들과 함께 단호히 섰습니다. 이 운동은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 종교적 신뢰를 기반으로 긴장을 중재하다

- **목회적 외교**

우리는 갈등 상황에 처한 사람들—유족들, 정치 지도자들, 각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들—의 인간적, 도덕적, 영적 필요를 적극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우리의 즉각적인 우선순위 중 하나는 무력 충돌로 인해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받지 못한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북부와 동부 지역이 그러했습니다.

신뢰받는 종교 지도자로서 우리는 갈등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식량, 의약품, 의료, 식수 등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정체성은 정치인들에게는 닫혀 있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 **현존과 도덕적 증언**

우리는 시민 소요, 주요 충돌, 국가가 직면한 중대한 도덕적 위기 속에서 적극적이고 주의 깊은 지원적 존재이자 도덕적 권위로서 함께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존재는 종종 폭력을 방지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공동체에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안전한 대화를 위한 보호적 환경 제공**

우리는 중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보호막'과 중립적인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로서 우리는 다양한 갈등 속의 양측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 평소에는 불가능했을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IV. 아시아 곳곳에서 평화를 실현하는 종교 지도자들

### 종교 지도자들은 도덕적 권위를 지님

아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은 종교의 차이를 막론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깊이 존경합니다. 이러한 존경심은 민족, 언어, 정치적 경계를 넘어 확장되며, 종교 지도자들에게 평화 구축 활동에서 독보적인 접근성과 영향력을 부여합니다.

### 사실 조사와 갈등 평가

우리는 공정한 갈등 이해를 위해 철저한 현장 조사와 다각적 시각에서의 갈등 역학 분석을 수행하며, 정의와 자비라는 종교적 원칙에 기반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극단주의에 대응하고 화해를 구축하기

- **태스크포스 방식**

민족 및 종교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폭력 사태로 변질 때, 우리는 훈련된 종교 지도자들을 즉시 현장에 함께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관련된 모든 집단과 소통하며 평화와 조화를 구축했고, 공동체가 평화적 수단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정서적·영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신속 대응 태스크포스는 스리랑카 전역의 모든 지역에 조직되어,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고 사태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갈등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 **선의를 중재와 소통**

우리는 대립하는 당사자들 간의 소통 창구를 열고 유지하였으며, 갈등을 부추기는 오해를 해소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중립성은 우리가 신뢰받는 중재자가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고등학생 대상 에카무투 랑카 프로그램**

의심과 불신 속에 있던 집단들 간의 화합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 스리랑카 시민권'이라는 이름 아래 진정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전국적으로 포괄적인 모임 시리즈를 조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갈등 영향을 받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에카무투 랑카" (통합된 스리랑카)라는 감동적인 이름 아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촉진과 청소년 참여**

우리는 다양한 종교, 문화, 사회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도록 하였고, 이들이 의미 있는 우정과 연대의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국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중재와 갈등 해결**

우리는 용서, 정의, 화해라는 종교적 원칙을 바탕으로 갈등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

도록 중재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 V. 경계를 넘어서: 다르마샷티의 비전

### 위기 대응에서 모든 신앙에 대한 동등한 존중

- **쓰나미 대응 (2004년)**

2004년 인도양 대지진으로 스리랑카 해안 지역이 참혹하게 파괴되었을 때, 우리는 즉시 종교 간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피해를 입은 해안 지역에서 수백 채의 주택, 사찰, 교회, 모스크, 힌두 사원을 건설하고 재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재건뿐 아니라, 우리는 긴급 대피소, 건식 식량, 조리된 음식,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 생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종교적 전통에 따라 적절한 장례나 마지막 의식을 받지 못한 쓰나미 희생자들을 위해 대규모 종교 간 위령 기도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는 모든 공동체에 걸친 수천 명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영적 치유를 제공했습니다.

- **다중 위기 대응**

우리의 훈련된 종교 간 팀은 대홍수, 2019년 부활절 폭탄 테러, 코로나19 팬데믹, 그 밖의 여러 자연 및 인위적 재난 이후에도 항상 현장에 함께해 왔습니다.

2019년 부활절, 극단주의자들의 자살 폭탄 테러는 교회와 호텔을 강타하며 종교 공동체 간에 커다란 오해와 위험한 불신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로서, 영구적으로 파괴될 수도 있었던 공동체 간의 신뢰와 상호 사랑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수많은 현장 방문, 긴급 회의, 언론 브리핑, 대중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고 통합을 지켜내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습니다.

- **동행과 사회적 연대**

우리는 위험에 처했거나 소외되었거나 도덕적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며 동행합니다. 어느 한 집단이라도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히면, 우리는 그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정당한 고충을 대변하는 영향력 있는 신뢰받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 자비, 정의, 평화에서 영감을 받다

- **화해와 치유**

우리는 갈등 당사자들이 비폭력적인 상호작용과 협상에 의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공포·불신·오해·왜곡된 인식을 체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적극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비, 용서, 정의라는 종교 전통이 공유하는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 **함께 축하하기**

우리는 공동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성공적으로 되살렸습니다. 종교적 융통성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창의적인 종교 간 기념행사와 의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제 불교의 웨삭(Wesak),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힌두교의 디왈리(Diwali), 이슬람의 라마단(Ramadan) 등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가 모든 종교 전통의 예배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경계를 넘어 헌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실천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조화를 위한 독창적이고 실천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 VI. 당면 과제와 나아갈 길

### 지속적인 장애물

- **정치 세력과 극단주의자의 반발** : 우리는 여전히 분열에서 이익을 얻는 정치인들과, 종교 간 협력을 자신의 이념적 순수성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는 극단주의자들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 **재정적 제약** : 우리는 풀뿌리 자원봉사 기반 조직으로서 항상 재정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 확대와 더 많은 공동체에 다가가는 데 제약이 됩니다.
- **더 넓은 풀뿌리 참여의 필요성** :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협력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궁극적으로 평화 노력의 성패를 결정짓는 일반 시민들과의 교류를 더욱 심화해야 합니다.

### 미래 방향

- **청년 리더십 개발** : 우리는 이 운동을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젊은 종교 간 리더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확장** : 우리는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온라인상의 혐오 발언과 허위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지역적 확산** : 우리는 유사한 종교 간 문제를 겪고 있는 남아시아 국가들과 우리의 모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VII. 결론

### 다르마샙티 불변의 유산

우리는 진심과 마음을 모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한 진실을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그리고 언제나 사랑 안에서 나누기 위해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속적인 신앙의 여정을 걸으며, 신성과 서로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이해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30년간의 노력은 진정한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이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차이가 우리를 나눌 필요가 없으며, 그것이 오히려 존중과 겸손, 진실한 사랑으로 접근될 때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이 여정이 다른 이들이 종교 간 이해와 협력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걷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길은 인내와 용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요구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 공동체와 국가가 얻게 되는 보상은 헤아릴 수 없이 큼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와 민족적 배경에 상관없이 존엄과 상호 존중, 공동 번영 속에 함께 살아가는 스리랑카를 만든다는 우리의 창립 비전에 계속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꿈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함께 노력할 때 이룰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평화를 위한 일은 결코 끝나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수록 우리 신앙이 그리는 공동체, 우리 마음이 바라는 공동체에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이러한 차이들이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거룩한 터전을 조성합니다."**

— 다르마샹티 창립 원칙

## 종교인의 평화실천과 화해의 길

### - 남북한 및 아시아의 경험을 중심으로

법륜스님(불교, 평화재단 이사장)

## I. 들어가며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정치, 종교, 민족 갈등이 뒤엉킨 깊은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원, 학교, 이재민 캠프까지 겨냥한 공격은 거의 **학살에 가까운 비인간적 폭력**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피를 흘리고, 어머니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가족의 시신을 꺼내고 울부짖는 모습은, 전쟁이란 이름아래 인간의 존엄이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한 채, 강대국의 지위를 앞세워 가자지구 폭격을 무차별적으로 감행했고, 이란과의 무력충돌로 중동을 전쟁의 불안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이란 폭격은 국제법과 외교적 절차마저 무시한 일방적 무력 행사로 강대국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착한 전쟁, 정의로운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인간성에 대한 폭력 그 자체입니다. 나만이 옳고 정의롭다는 생각은 나와 다른 상대를 악마화하고 제거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한반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은 단지 남북을 가르는 군사 경계선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감정, 언어까지도 갈라 놓았습니다. 남과 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뿐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지역과 이념, 세대와 계층을 가르는 분열과 혐오의 말들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과 폭력이 구조화되고, 무감각이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종교는 무엇을 해야 하며, 종교인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종교가 언제나 화해와 평화의 편에 서 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리를 앞세워 상대를 배척하거나, 진리의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고, 심지어 폭력을 선동하는 일조차 종종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종교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 종교인들 모두의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묵묵히 고통받는 이웃 곁을 지키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잇고



자 실천해 온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교단의 입장을 앞세우기보다 인간의 생명과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말보다 행동으로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종교계가 서로 손잡고 함께 걸어온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여정**을 되짚어보며, 어떻게 분단의 상처를 보듬고, 공존의 문을 열어왔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둘째, 아시아 각국의 분쟁과 갈등 현장에서 펼쳐진 **초종교적 인도주의 실천 사례**들을 소개하며, 서로 다른 믿음들이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 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과 책임을 남기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종교가 때로는 진리의 이름으로 사람을 배척하고, 공동체를 갈라놓았던 순간들을. 동시에, 종교는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 조용히 머물고, 절망의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희망을 길어올린 힘이기도 합니다.

서로 교리와 전통은 달랐지만, 진심으로 고통에 응답하고자 했던 종교인들은 서로의 다름을 넘어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고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어난 연대의 실천은 단지 과거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함께 나누고, 이어가야 할 ‘희망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키우는 길 위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 II.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실천

먼저, 지난 30여 년간 한국 종교계가 함께 실천해온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한국 종교계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평화운동은 단순한 자선이나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대홍수와 기근으로 300만 명에 가까운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단과 증오로 높아진 남북 현실의 벽을 넘어,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 종교인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동포들을 살리고자 하는 절절한 마음이었고, 분단과 증오의 벽을 넘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화해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의 첫걸음은 1997년, 강원도 감자 1,690톤을 북한에 보낸 일이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며 아사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1997년 7월, ‘민족화해를 위한 북한동포돕기 100만인 서명운동’에는 수많은 시민과 종교인이 한마음



로 참여했습니다. 분단 이후 굳어졌던 침묵의 벽을 깨고, 화해를 향한 대중적 의지를 드러낸 외침이었습니다.



이후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의 종교인들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을 결성하여, 매월 정례적으로 모여며 초종교적 연대를 구축해 왔습니다.

2008년, 북한의 기근이 다시 심각해지자, 종교계와 시민사회, 각계 지도자들은 힘을 모아 ‘긴급 식량 20만 톤 지원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굶주림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정치보다 먼저 밥이 가야 한다.”

같은 해, ‘북한 주민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다시 시작되었고, 2010년에는 남북정상회담 재개와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2010년 8월에는 개성을 통해 식량을 직접 전달하며, 분단 이후 얼어붙었던 북측과의 통로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2013년, 종교계와 정치계 인사 66명이 함께 발표한 ‘국민통합선언문’은 국회에서 본회의 결의안으로 채택되어 제도 정치와 시민사회 사이의 다리를 놓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선언문은 단지 평화의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려는 진심 어린 약속이었습니다.



2016년 3월, 종교인들은 삼일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며 ‘민족의 화해와 신뢰 회복을 위한 종교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 강점기 아래에서 천도교·불교·개신교 종교인 33인이 함께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시작된 삼일운동은, 전국 곳곳에서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으로 타올랐고, 마침내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력을 거부하고 비폭력으로 저항한 이 운동은, 단지 한국의 독립운동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족운동에도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2017년 11월, 종교·사회·정치 원로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 방지를 기원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갈등의 고조 속에서도 평화의 길을 지키고자 하는 시대적 응답이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전쟁 반대, 평화 정착’을 외치는 ‘한반도 만인평화선언’과 ‘만인의 다짐’이 이어졌고 이러한 염원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종교인 평화선언이 발표되어, 분단 70년을 넘어서는 화해의 염원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반도 평화와 국민대통합’을 염원하는 ‘만인평화선언과 만인대법회’가 열리며, 함께 사는 세상을 바라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처럼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종교인의 화해와 평화 실천의 여정은, 단지 종교인만의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시대가 함께 써 내려간 화해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밑바탕에는 종교 고유의 가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자비, 사랑, 화해 등은 특정 종단의 교리를 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슴 깊이 품고 있는 보편적인 신념입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 서로 다른 입장과 진영을 넘어서게 하는 **연대의 에너지**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평화재단이 주관해 온 ‘종교인모임’과 ‘화해상생마당’은 남북문제뿐 아니라 한국 사회 내 지역·세대 간 균열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과 성명을 이어오며,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공론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종교인은 자신의 신앙을 넘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며, 분열보다는 공존을 선택해 왔습니다.

오늘날 다시 갈등과 혐오가 일상처럼 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종교인의 책임은 더욱 깊고 무겁습니다.** 종교는 분열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열어가는 마중물의 역할**,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연대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실천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이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가장 따뜻하고도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 왔습니다.

### Ⅲ. 한국 종교계의 아시아 갈등 지역에서 행한 화해의 실천 사례

아시아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 도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땅이지만, 이 다양성은 때때로 민족, 정치, 경제적 이해와 결합되어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 종교는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교 간 갈등을 넘어서, 종단과 교리를 초월한 **‘인도적 지원’**이 이어졌고, 한국 종교계도 그 길에 함께 했습니다.

#### 1. 필리핀 민다나오: 종교를 넘어선 교육 협력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은 무슬림(MILF)과 원주민(NPA)의 분리운동으로 기독교 중심의 정부군과 무력충돌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곳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달라도, 사상이 달라도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제때에 배워야 한다”는 공통의 신념 아래 학교 건축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땅을 내놓고, 자재를 마련하고, 학교를 함께 세웠으며, 20여 년간 72개의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무슬림 카톨릭 원주민 간의 **화해와 신뢰의 공간**이 되었고, 총칼을 내려놓고 이 지역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깊은 산 속에서 세상에 그 존재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세상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책이 아닌 종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JTS의 법륜스님이 처음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도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아버지도, 나도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나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나의  
아니 조상 대대로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JTS가 그 꿈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아침부터 자재를 등에 싣고  
산을 오르고, 계곡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또 그의 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100년이 지나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마움은 세상의 그 어떤 고마움보다 큼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는 큰 바구니가 있다 해도  
오늘의 이 고마움을 다 채워 넣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04년 6월 5일  
학교 준공식에서 다투 만사이사얀의 소감



## 2. 인도 동게스와리: 평등의 가치를 가르치다

인도 북부의 한 불가촉천민 마을 동게스와리. 이곳에는 학교도, 병원도, 현대 문명의 혜택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학교를 세워 다양한 종교와 카스트 배경의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도 차별 없이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학교는 카스트와 성별, 종교를 넘어선 자비와 연대를 실천하는 장이 되었고, 교육은 대화와 화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학교 교사와 지역 리더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3. 전쟁과 난민 현장에서의 초종교적 인도주의

내전으로 고향을 떠난 시리아 지진피해 지역에 학교 건설, 파키스탄 홍수피해 지원,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지원,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 지역에 가스버너와 생필품 지원, 미얀마 지진피해 지역 인도적 지원 등은 종교를 묻지 않고 오직 인간의 생존 권리를 존중하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지원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로힝야 난민처럼 종교적 이유로 고립된 이들에게 다른 종교 간 연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존재의 인정과 존엄의 회복**이었습니다.



### 4. 부탄 :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여정

오늘날 인류는 과거에 비해 물질적 풍요는 이루었지만 정신적 고통은 커졌고, 기후위기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이 지속 가능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한 결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행복지수를 처음 개발한 부탄에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통해 소박한 삶 속에서 유정 무정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IV. 결론: 종교 간 대화는 실천으로 완성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남북한 및 아시아의 사례들은 모두 종교 간 대화의 말과 선언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 곁에 서는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때 배워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도와야 합니다.’ 종교가 달라도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는 기반입니다. 종교 간 대화는 고위급 회담이나 선언문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진정한 화해의 씨앗이 자랍니다.**



특히 평화재단의 초대로, 스리랑카에서 오랜동안 종교간 대화와 스리랑카 평화를 위해 ‘다르마샷티(Dharmashakthi, 진리의 힘)’를 결성하여 헌신해 온 종교지도자들이 이번 국제화해학회에 참여해서 함께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착한 전쟁도, 정의로운 전쟁도 없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전쟁과 각종 분쟁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우리 종교인들의 성찰과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시아 평화를 위한 ‘종교 간 실천적 대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글로벌 대평화시대’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종교의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시는 고통받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끝)

# BRIDGING FAITHS, HEALING NATIONS

Dharmashakthi's Journey Toward Interreligious Harmony in Sri Lanka

Rev. Fr. Anura Perera

## I. DEVELOPING INTERRELIGIOUS SENSITIVITY AND COMMITMENT OVER THREE DECADES

### **Formed in Response to Sri Lanka's 30-Year Ethnic Conflict**

Sri Lanka has faced long-standing ethnic conflicts fueled by misunderstandings and deep-rooted distrust, resulting in significant barriers and divisions among the country's diverse religious and ethnic communities. These divisions created a deeply polarized nation and severely hindered the country'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The persistent conflicts also attracted international scrutiny and pressure, further jeopardizing national integration and sovereignty.

Narrow-minded extremist elements, often with hidden political agendas, actively contributed to social unrest and violence, systematically impeding inter-ethnic and interreligious harmony. This toxic environment ultimately culminated in a devastating 30-year civil war (1983-2009) that claimed over 100,000 lives and displaced millions. The conflict fundamentally challenged Sri Lankan society to transform itself and find pathways toward genuine interreligious harmony and national reconciliation.

Political leaders, driven by an insatiable greed for power, deliberately engaged in fostering conflicts and disharmony to gain short-term political advantages. They systematically polarized the population through ethnic and religious extremism, using divisive rhetoric and discriminatory policies. Society was pressured and manipulated to accept these destructive narratives, creating a cycle of mistrust and violence that seemed impossible to break.

### **Initiated by Visionary Clergy from Buddhism, Hinduism, Islam, and Christianity**

In response to this dire need for unity and healing, the Dharmashakthi

organization was courageously initiated by a small but determined group of progressive clergy from various religious traditions. Their primary aim was to promote genuine inter-ethnic and interreligious harmony in our highly fragmented society. Buddhist monks, Hindu priests, Islamic scholars, and Christian ministers, who were deeply rooted in the authentic teachings of their respective faiths, felt a moral obligation to collaborate and actively sought out like-minded individuals who shared their vision of peace.

Our foundational principle became: "We are different, but let us create a sacred space for our differences to coexist and flourish." Initially, only a handful of progressive clergy from different religions were willing and able to participate in this groundbreaking initiative. Today, we are delighted that interfaith dialogue and cooperation have become essential components in all political, social, and religious activities across Sri Lanka.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e participate as individuals committed to peace, not as official spokespersons of our respective faith communities. Some of our views may align with official religious doctrine, while others may represent our personal convictions. We remain open to dialogue and discussion with anyone seeking understanding and common ground.

### Ground Rules for Our Religious Symposium Meetings

Through careful deliberation and practical experience, we developed comprehensive guidelines to ensure respectful and productive interfaith dialogue:

1. **Confidentiality:** We agree that personal details and sensitive disclosures shared within the group remain confidential and are not discussed outside our gatherings. Members are free to share their own learning experiences and personal reflections.
2. **Respect for Differences:** Every participant has the fundamental right to be different, as do all members of our diverse group. We can disagree with ideas while maintaining respect for persons—we can disagree without being disagreeable.
3. **No Interrupting:** We give each other adequate time to reflect, clarify thoughts, and articulate them clearly. We wait until the speaker is completely finished before responding. We acknowledge that no person or religious group possesses total and absolute truth.
4. **Equal Time, Equal Space:** Each participant takes responsibility for how often they speak and ensures that others receive equal time and space to contribute, regardless of perceived religious or social superiority or

inferiority.

5. **No Unsolicited Advice:** We encourage participants to come to their own decisions and conclusions about what is right and appropriate for their spiritual journey. We speak from our own experience and avoid giving direct advice to others (avoiding phrases like "If I were you, I would..." or "You should...").
6. **Active Listening:** We pay close attention to what each person is actually saying without judgment, rather than listening only for what we want or expect to hear.
7. **Speaking in First Person:** We use "I" statements and speak directly from our own experience, using phrases like "I believe" or "I feel" rather than making generalizations like "Everybody says" or "Most people feel." We speak personally as individuals, not as representatives of our religious institutions.
8. **Personal Responsibility:** We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what we think, do, say, and feel in each session. Equally important, we take responsibility for what we choose not to say or contribute.
9. **Voluntary Disclosure:** Participants only share what they are comfortable with, regardless of what others may choose to disclose.
10. **Right to Pass:** We honor each person's right to "pass" if they are not ready or willing to speak on a particular topic.

These agreements were gradually amended, developed, and adopted through our collective experience and wisdom.

### **Grassroots Movement: Self-Funded and Volunteer-Driven**

This small nucleus of committed religious leaders met regularly in each other's places of worship, creating a rotating sacred space that honored all traditions. Since Dharmashakthi is not funded by foreign sources or large institutions, there were no external funds available to cover operational expenses. Instead, members generously shared their personal resources to support this vital peacebuilding effort, demonstrating their genuine commitment to the cause.

Their primary goal was to meaningfully engage with different religious communities to advance authentic interreligious harmony and understanding. They approached this sensitive mission with great caution and wisdom, gradually involving civil society leaders, social activists, university students and lecturers, school teachers, professionals, and media personalities who shared their vision of a peaceful, integrated Sri Lanka.



## II. THE DHARMASHAKTHI MODEL OF DIALOGUE AND COOPERATION

### Regular Religious Symposiums in Places of Worship

We systematically conducted interfaith symposiums in every district across Sri Lanka,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religious leaders representing all four major faith traditions. These were typically structured as intensive one-day programs, repeated as community needs required, or extended to two or three-day residential programs when deeper engagement was necessary.

Our overarching goal was to bring religious leaders into close, meaningful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and create a genuine fraternity that could respond to societal needs with a unified voice and coordinated action. This represented a revolutionary approach in a society traditionally marked by religious segregation and mutual suspicion.

Through various carefully designed activities, we focused on creating awareness and mutual understanding by honestly exploring both th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between our faith traditions. We facilitated live, friendly discussions that helped clarify persistent misconceptions about the founders of our religions, sacred scriptures, core beliefs, rituals and ceremonies, cultural patterns and behaviors, social structures, and approaches to life and spirituality.

These symposiums proved instrumental in advancing our concept of forging authentic unity and lasting friendship among different faith groups, enabling us to work together effectively on various platforms and initiatives. Many serious fears and long-held suspicions were directly addressed and resolved, while mutual trust, genuine love,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were successfully promoted and strengthened.

### Focused on Deep Listening and Mutual Respect

At our first encounters, we actively and intentionally focused on truly hearing each speaker—not just listening to their words, but striving to understand their emotions, perspectives, and underlying spiritual and human needs. This approach was about creating genuinely safe spaces where speakers could express themselves fully and authentically, without fear of judgment or ridicule.

This practice of deep, empathetic listening helped build a strong sense of trust and rapport among participants, demonstrating genuine understanding and fostering deep, lasting connections that transcended religious boundaries. We discovered that

when people feel truly heard and respected, they become more open to understanding others.

### **Building Long-Term Interfaith Relationships**

This proved to be the most challenging barrier to overcome, as our society had been conditioned to have virtually no appreciation for religious diversity. The prevailing mindset was exclusivist: "My religious worldview explains all reality, denying the validity of other truths." This led to isolation, mockery, stereotyping, and deliberate separation from other faith communities.

We had to overcome the defensive posture where people protected their own faith by claiming "truth exists only in my faith," viewing differences as threatening and reacting with negative evaluations, feelings of superiority, and creating structures designed to separate and condemn others.

We also had to move beyond the superficial minimization of interreligious efforts that claimed "all religions are the same," "we are all the same children of God," or "one world, one people"—approaches that actually trivialize important differences and prevent genuine understanding.

Our breakthrough came through actively participating as a unified group in each other's religious festivals and special events. This increased our understanding of and respect for other religious festivals and traditions, deepening our appreciation of their unique values and spiritual insights. These mutual relationships supported us in strengthening each other's trust and learning from one another, enabling us to change and grow together.

We discovered that spirituality is absolutely central to the interfaith encounter experience and to genuinely transforming participants' attitudes and perspectives.

## **III. INTERFAITH ACTIONS FOR SOCIAL PEACE**

### **Engaging Religious Leaders with Civil Society, Media, Students, and Activists**

- **Education and Awareness Building**

**Consciousness-Raising:** We systematically raised awareness about social injustices and systemic inequalities affecting all communities. This included conducting comprehensive nonviolence training programs and building capacity in conflict resolution, conflict transformation, sustainable peacebuilding, and civic

education.

**Community Workshops:** We organized regular workshops in rural and urban areas, teaching practical skills for peaceful coexistence and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These sessions included conflict de-escalation techniques, mediation skills, and interfaith dialogue facilitation.

- **Advocacy and Social Action**

**Nonviolent Resistance:** We led and participated in nonviolent protests, struggles, and movements advocating for socio-economic and political reforms that would benefit all communities. Our religious authority lent moral weight to campaigns for positive social change.

**COVID-19 Response:** When the COVID-19 pandemic struck and the entire country went into lockdown, we were immediately present, actively supporting affected communities. We coordinated with religious centers—temples, churches, mosques, and kovils—to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and relief to all those who lost their income, regardless of their religious affiliation. Our interfaith network distributed food, medicine, and essential supplies to thousands of families.

**Defending Religious Rights:** When the government mandated compulsory cremation of bodies of persons who died of COVID-19, this met with serious opposition, especially from the Muslim community whose religious beliefs require burial. Our organization courageously stood for the burial rights of all communities, as the government's policy was scientifically unfounded and contradicted World Health Organization guidelines. Through persistent advocacy, we helped secure policy changes that respected religious practices.

**Supporting Democratic Movements:** During the Aragalaya protests staged by concerned youth against government injustices and corrupt practices—which ultimately resulted in a regime change—we as religious leaders stood firmly with the people who were courageously fighting for justice, democracy, and good governance.

## Building on Religious Trust to Mediate Tensions

- **Pastoral Diplomacy**

We actively ministered to the human, moral, and spiritual needs of people caught in conflict situations, including those who were bereaved, political leaders, and religious leadership from all communities. One of our immediate priorities was reaching out to innocent civilian populations who were deprived of essential services due to the armed conflict, especially in the Northern and

Eastern provinces.

As trusted religious leaders, we were uniquely positioned to approach both parties in the conflict, win their confidence, and reach affected people to provide them with basic essentials such as food, medicine, healthcare, clean water, and many other critical services. Our religious credentials opened doors that remained closed to political actors.

- **Presence and Moral Witness**

We provided an active, watchful, supportive, and morally authoritative presence during times of civil unrest, major confrontations, and great moral challenges facing our nation. This physical presence often helped prevent violence and provided reassurance to frightened communities.

- **Providing Protective Auspices**

We hosted crucial dialogue sessions, providing "protective cover" and neutral spaces for conflicting parties to meet safely. As respected religious leaders, we were able to approach both sides in various conflicts, win their trust, and facilitate conversations that might otherwise have been impossible.

## **IV. CLERGY AS PEACEBUILDERS ACROSS ASIA**

### **Religious Leaders Carry Unique Moral Authority**

Throughout Asia, people deeply respect religious leaders regardless of their specific faith differences. This respect transcends ethnic, linguistic, and political boundaries, giving religious leaders unique access and influence in peacebuilding efforts.

### **Fact-Finding and Conflict Assessment**

We consistently sought balanced understanding of conflicts by conducting thorough fact-finding missions, assessing complex conflict dynamics from multiple perspectives, and recommending practical ways forward based on religious principles of justice and compassion.

### **Countering Extremism and Building Reconciliation**

- **Task Force Approach**

When ethnic and religious conflicts erupted and sometimes turned violent, our trained religious leaders were immediately mobilized to be physically present

together at conflict sites. They were consistently successful in engaging with all groups involved, establishing peace and harmony while helping communities resolve their conflicts through peaceful means and heal their emotional and spiritual wounds.

These kinds of rapid-response task forces were established in all districts across Sri Lanka and were able to respond immediately to emerging conflicts, helping contain further escalation. Subsequently, they engaged with all stakeholders to address underlying grievances and work toward sustainable solutions.

- **Good Offices and Communication**

We opened and maintained lines of communication between polarized parties, often carrying messages and clarifying misunderstandings that fueled conflicts. Our religious neutrality made us trusted intermediaries.

- **Ekamuthu Lanka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To further strengthen harmony among suspicious groups and forge genuine unity under the banner of shared Sri Lankan citizenship, we organized a comprehensive series of gatherings across the country. These focused especially on conflict-affected areas and targeted high school students under the inspiring title of "Ekamuthu Lanka" (United Sri Lanka).

- **Facilitation and Youth Engagement**

We conducted face-to-face discussions among young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bringing together youth of diverse religious,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s to spend meaningful days of fellowship. These programs brought them together and prepared them to work collaboratively on common platforms for shared national causes.

- **Med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We facilitated negotiations to help parties arrive at terms of agreement, using religious principles of forgiveness, justice, and reconciliation to guide the process.

## V. BEYOND BOUNDARIES: DHARMASHAKTHI'S VISION

### Equal Respect for All Faiths in Crisis Response

- **Tsunami Response (2004)**

When the tragic Indian Ocean tsunami devastated Sri Lanka's coastal areas, we immediately mobilized our interfaith network to respond comprehensively. We helped build and rebuild hundreds of damaged houses, temples, churches,

mosques, and kovils throughout the affected coastal regions. In addition to reconstruction, we provided emergency shelter, dry rations, cooked meals, clean water and sanitation facilities, and professional counseling services to traumatized survivors.

As religious leaders, we organized a massive interfaith blessing ceremony for tsunami victims who had not received proper last rites or burial according to their religious traditions. This provided spiritual comfort to thousands of grieving families across all communities.

- **Multi-Crisis Response**

Our well-trained interfaith team has been consistently present in the aftermath of other tragic events, including devastating floods, the horrific Easter Sunday bomb attacks (2019), the COVID-19 pandemic crisis, and various other natural and human-made disasters.

The suicide bomb attacks on churches and hotels on Easter Sunday 2019 by extremist terrorists created an enormous cloud of misunderstanding and dangerous suspicions among religious communities. We as religious leaders played a tremendous and crucial role in successfully restoring trust and mutual love among communities that could have been permanently damaged.

Through countless visits, emergency meetings, media briefings, and public declarations, we worked tirelessly to uphold unity and prevent violent escalation that could have torn our society apart.

- **Accompaniment and Social Solidarity**

We consistently stand by and walk alongside those who are endangered, marginalized, or facing moral challenges. Whenever any segment of the population encounters serious difficulties, our organization goes the extra mile to assist people in finding solutions. We have become an influential and trusted voice advocating for people's rights and addressing their legitimate grievances.

## **Inspired by Compassion, Justice, and Peace**

- **Conciliation and Healing**

We actively help move conflicting parties toward nonviolent interaction and negotiated settlements by systematically reducing fears, suspicions, misunderstandings, and harmful misperceptions. Our approach is grounded in the shared religious values of compassion, forgiveness, and justice.

- **Celebrating Together**

We successfully revived the beautiful custom of communities being together during both happy and sorrowful moments. We introduced innovative interfaith

celebrations and ceremonies wherever religious flexibility allowed. Special ceremonies are now regularly organized in religious places of all traditions to mark Wesak (Buddhist), Christmas (Christian), Diwali (Hindu), and Ramadan (Islamic) festivals.

This represents a unique, practical approach to building sustainable peace and harmony, pioneered and led by committed religious leaders working together across traditional boundaries.

## VI. CHALLENGES AND THE ROAD AHEAD

### Ongoing Obstacles

- **Resistance from Political and Extremist Actors:** We continue to face opposition from politicians who benefit from division and religious extremists who view interfaith cooperation as a threat to their ideological purity.
- **Funding Limitations:** As a grassroots, volunteer-driven organization, we constantly struggle with limited financial resources, which restricts our ability to expand programs and reach more communities.
- **Need for Greater Grassroots Involvement:** While we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with religious leaders, we need to deepen our engagement with ordinary community members who ultimately determine whether peace efforts succeed.

### Future Directions

- **Youth Leadership Development:** We are expanding our focus on training young interfaith leaders who can carry this work forward into the next generation.
- **Digital Outreach:** We are exploring ways to use technology and social media to spread messages of peace and counter online hate speech and misinformation.
- **Regional Expansion:** We are sharing our model with other South Asian countries facing similar interfaith challenges.

## VII. CONCLUSION

### Dharmashakthi's Enduring Legacy

We have come together to share from our hearts and minds, speaking truth

honestly and sincerely as we understand and experience it—and always in love. We are all on continuing faith journeys, constantly evolving and growing in our understanding of the divine and our responsibility to one another.

Our three decades of work have demonstrated that authentic interfaith dialogue and cooperation are not only possible but essential for building just and peaceful societies. We have shown that religious differences need not divide us—they can enrich us when approached with respect, humility, and genuine love.

May this account of our journey help others along their own pilgrimage of interfaith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The path of peace requires patience, courage, and unwavering commitment, but the rewards—for our communities and our nation—are immeasurable.

As we look toward the future, we remain committed to our founding vision: creating a Sri Lanka where all people, regardless of their religious or ethnic background, can live together in dignity, mutual respect, and shared prosperity. This is not merely a dream—it is an achievable goal that requires the dedicated efforts of people of all faiths working together.

The work of peace is never finished, but every step forward brings us closer to the beloved community that our faiths envision and our hearts desire.

**"We are different, but let us create a sacred space for our differences to coexist and flourish." — Dharmashakthi Founding Principle**



# The Path of Peace Practice and Reconciliation by Religious Leaders: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Ven. Pomnyun Sunim  
(Buddhism, Chairperson of the Peace Foundation)

## I. Introduction

Today, we're living through a serious global crisis. Political, religious, and ethnic conflicts are tangled up everywhere around the world.

Russia invaded Ukraine. Israel bombed Gaza. Countless civilians have died. When hospitals, schools, and refugee camps become targets, this isn't just war anymore - it's almost like mass killing. We see children bleeding, mothers crying as they hold their family members' bodies in the rubble. This shows us how war brutally destroys human dignity.

Israel ignored international rules and bombed Gaza without mercy, using its power as a major nation. The conflict with Iran has pushed the Middle East into fear of war. And when the United States bombed Iran, it showed us the ugly face of power politics - using force without following international law or diplomatic procedures.

**There's no such thing as a good war or a just war.** War itself is violence against humanity. When we think only we are right and just, we start seeing others as evil beings that must be destroyed.

The Korean Peninsula faces the same problems. We've been divided for over 70 years. This division isn't just a military line between North and South - it has split our ways of thinking, our emotions, even our language. There's not only military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but inside South Korean society, we see daily expressions of division and hatred across regions, ideologies, generations, and social classes.

In this time when conflict and violence are becoming normal and people are becoming numb to it, we have to ask again: **What should religion do, and where**

should religious leaders stand?

We know that religion hasn't always stood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Sometimes different religious teachings have been used to exclude others, to justify discrimination and hatred in the name of truth, and even to encourage violence - often in the name of religion itself. **Religion has sometimes become a tool that deepens social conflict and breaks apart communities.** This truth requires all of us religious leaders to reflect deeply.

But even so, there have always been religious leaders who quietly stood by those who were suffering, working to rebuild broken trust. Instead of putting their institutions first, they put human life and suffering at the center. They respected differences and tried to create reconciliation and peace through actions, not just words.

Today, I want to share two stories with you.

First, I want to look back on the 30-year journey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peace that Korean religious communities have walked together. I'll share how we've embraced the wounds of division and opened doors to living together.

Second, I'll introduce examples of interfaith humanitarian work in conflict zones across Asia. I want to reflect on how different faiths have worked together to address human suffering, and what possi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these experiences give us today.

We remember the times when religion excluded people and divided communities in the name of truth. At the same time, we remember how religion has quietly stayed beside those in pain, reaching out in desperate moments to bring up hope. Though their teachings and traditions were different, religious practitioners who sincerely wanted to respond to suffering **walked in the same direction, going beyond their differences.** Their steps weren't big or flashy, but they **brought warmth to the world and moved people's hearts.**

The solidarity that grew from this isn't just a beautiful story from the past. It's a 'seed of hope' that we must remember, share, and carry forward today. We all stand on the path to growing those seeds.

## II. Religious Practitioners' Efforts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Peace

First, let me look back on the journey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peace that Korean religious communities have practiced together for over 30 years.

The humanitarian aid and peace movement toward North Korea that began in 1997 wasn't just charity or a one-time campaign. At that time, North Korea was suffering from terrible floods and famine - nearly 3 million people reportedly died from starvation. Going beyond the high walls of division and hatred, religious leaders took the first step to help their starving neighbors in the North. It came from a desperate desire to save suffering people, and it was a journey of reconciliation reaching across the walls of division and hatred.

The first step of this journey came in 1997, when we sent 1,690 tons of potatoes from Gangwon Province to North Korea. We were determined to save the lives of people who were on the edge of starvation during a severe food crisis.



In July 1997, countless citizens and religious leaders joined together in the "One Million Signatures Campaign to Help North Korean Compatriots for National Reconciliation." It broke through the wall of silence that had hardened since division and showed the public's will for reconciliation.



After this, religious leaders from Korea's five major faiths - Catholicism, Protestantism, Buddhism, Won Buddhism, and Cheondoism - formed the "Religious Leaders' Council for National Reconciliation and Peace." They've been meeting regularly every month, building interfaith solidarity.

In 2008, when North Korea's famine became serious again, religious communities, civil society, and leaders from all walks of life joined forces to issue an appeal for 200,000 tons of emergency food aid. "No one is exempt when facing hunger, and food must come before politics."

That same year, the "One Million Signatures Campaign for North Korean Residents" started again. In 2010, there were press conferences and statements calling for inter-Korean summits to resume and for humanitarian aid. **In August 2010, we directly delivered food through Kaesong**, bringing a small but meaningful warmth to the frozen communication channels with the North since division.



In 2013, the "National Unity Declaration" jointly issued by 66 leaders from religious and political sectors was adopted as a resolu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This **became a symbolic event that built a bridge between institutional politics and civil society**. The declaration wasn't just shouting slogans for peace - it was **a sincere promise to heal the internal conflicts and divisions within Korean society**.

In March 2016, religious leaders held a press conference remembering the spirit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calling for national reconciliation and restoring trust. On March 1, 1919, under Japanese rule, 33 religious leaders from Cheondoism, Buddhism, and Christianity proclaimed the Decla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Their call - "Long Live Korean Independence!" - spread across the nation and eventually led to establish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This nonviolent resistance movement didn't just inspire Korea's independence struggle - it also inspired nationalist movements in other parts of Asia.

In November 2017, senior figures from religious, social, and political spheres issued a public statement calling for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and



preventing war. This was a timely response to keep the path of peace during rising tensions. In December that year, the "Ten Thousand Citizens' Peace Declar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opposed war and called for lasting peace, with thousands making pledges. These collective hopes eventually contributed to the 2018 inter-Korean and North Korea-U.S. summits.



In July 2023, 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religious leaders issued a peace declaration, renewing the hope for reconciliation beyond 70 years of division. Then in 2024, the "Ten Thousand Citizens' Peace Declaration and Grand Dharma Assembly"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national unity brought together the hearts of many who dream of a world where we can live together.



This journey of reconciliation and peace that religious leaders have practiced over the past decades hasn't been the work of religious leaders alone. **It's a history of reconciliation that all of us, our entire generation, have written together.**

At the foundation of these efforts are religion's essential values. Respect for life,

compassion, love, and reconciliation are universal beliefs that all human beings hold deep in their hearts, going beyond any specific religious tradition's teachings. These beliefs have become **the energy of solidarity** that helps us go beyond opposing views and divisions.

Especially the 'Religious Leaders' Council' and the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Forum' hosted by the Peace Foundation have continued discussions and statements not only on inter-Korean issues but also to resolve divisions within Korean society across regions and generations. They've served as platforms for healthy civil society. Religious leaders have raised their voices responsibly as members of civil society, going beyond their own faith, choosing coexistence over division.

Today, as conflict and hatred are spreading like everyday occurrences again, **religious leaders' responsibility is deeper and heavier than ever**. Religion must serve as the priming water that opens the path to living together beyond division, and **as a space of solidarity with those who suffer**.

Such practice is actually the invisible root that supports democracy, and **it has become one of the warmest and strongest stepping stones towar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III. Examples of Reconciliation Efforts by Korean Religious Circles in Asian Conflict Zones

Asia is home to many religions - Buddhism, Hinduism, Islam, Christianity, Taoism - but this diversity has often mixed with ethnic,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to become a source of conflict. Even so, when facing human suffering, religion has never stopped trying to return to its original role. **Humanitarian** aid that goes beyond religious boundaries and teachings has continued, and Korean religious communities have walked that path too.

#### 1. Philippines Mindanao: Educational Cooperation Beyond Religion


Mindanao in the Philippines has long seen armed conflict between Muslim separatists (MILF), indigenous groups (NPA), and Christian-led government forces. But despite differences in religion and ideology, there was one shared belief: "Children should be educated at the right time." Under this common value, we actively built schools. We offered land, gathered materials, and built schools together. Over 20 years, 72 schools have opened. These institutions have become more than just places of education - **they are spaces of reconciliation and trust**

among Muslims, Catholics, and indigenous communities. They've helped people lay down their weapons and contributed to bringing peace to the region.

"우리는 이 깊은 산 속에서 세상에 그 존재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세상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니다.  
아이들은 책이 아닌 총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JTS의 베피스님이 처음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도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아버지도, 나도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나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나의  
아니 조상 대대로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JTS가 그 꿈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아침부터 자재를 등에 싣고  
산을 오르고, 계곡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또 그의 아들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100년이 지나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마움은 세상의 그 어떤 고마움보다 큼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낼 수 있는 큰 바구니가 있다 해도  
오늘의 이 고마움을 다 채워 낼 수 없을 것입니다."

2004년 6월 5일  
학교 준공식에서 다투 만사이사얀의 소감





"We lived deep in these mountains, forgotten by the world. No one knew we existed, and no one cared about us. Children played not with books, but with guns.

But Ven. Pomnyun of JTS came to our village for the first time and said he would build a school for our children. My grandfather never went to school, nor did my father, nor did I. For generations, it has been our dream for our children to go to school. JTS made that dream come true.

All the villagers carried building materials on their backs from morning, climbing mountains and crossing valleys, to make this dream a reality. They built this precious school strong and lasting, so that 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can continue to study here even after 100 years.

This gratitude is greater than any gratitude in the world. Even if there were a giant basket that could hold everything in the world, it could never contain all the gratitude we feel today."

*June 5, 2004*

*- Remarks by Datu Mansayasan at the school completion ceremony*

## 2. Dungeshwari, India: Teaching the Value of Equality

In the village of Dungeshwari in northern India, an untouchable (Dalit) community lived without schools, hospitals, or modern civilization's benefits. We established a school in this village to provide equal learning opportunities to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caste, religion, or gender. The school became a space for practicing compassion and solidarity that went beyond caste, gender, and faith. Education became the starting point for dialogue and reconciliation. These children have grown up to become teachers, community leaders, and volunteers.





### 3. Interfaith Humanitarianism in War and Refugee Zones

We've continued support activities like building schools in earthquake-hit areas of Syria for those who left home due to civil war, helping Pakistan flood victims, supporting Afghan refugee camps, providing gas burners and daily necessities in Rohingya refugee camps in Bangladesh, and delivering humanitarian relief to earthquake zones in Myanmar. All of these were done without asking about religion, guided only by humanitarian principles that respect the right to human survival. Especially for Rohingya refugees who have been isolated due to religious reasons, interfaith solidarity was more than simple aid - it was **recognition of their existence and restoration of their dignity.**







#### 4. Bhutan: A Journey Toward a Sustainable Life

Today, humanity has achieved material wealth compared to the past, but mental suffering has grown, and the climate crisis is speeding up. We live in an age where no one can guarantee that human life will be sustainable. Why has trying to live well and be happy led to this result? We started an experiment for humanity's sustainable living in Bhutan, the first country to develop a happiness index to find ways for humans and nature to live together happily. Through reconciliation between humans and nature, we want to find a path to community life where all living and non-living things can live together in a simple lifestyle.

### IV. Conclusion: Interfaith Dialogue is Fulfilled Through Practice

The examples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across Asia that I've shared today all show that interfaith dialogue isn't completed through words and declarations alone - **it's realized through action, by standing beside those who suffer.**

"The hungry should have food. The sick should be treated. Children should be educated at the right time." "Anyone who is suffering should be helped." These principles form the common ground where we can all stand, regardless of religious differences. Interfaith dialogue doesn't end with high-level meetings or joint declarations. **It's in the field, through shared sweat and cooperation, that the true seeds of reconciliation take root.**

I'm especially happy that through the Peace Foundation's invitation, religious leaders from Sri Lanka who have long been dedicated to interfaith dialogue and peace in their country through "Dharmashakthi" (the Power of Truth) are participating in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conciliation to present and discuss with us.

There's no such thing as a good war or a just war. As we remember the victims of

ongoing wars and conflicts around the world, I hope for deeper reflection and stronger cooperation among religious leaders. May this gathering serve as a new starting point for "**practical interfaith dialogue**" for peace in Asia, and help us prepare for a "Global Era of Great Peace."

Let's take one step beyond simply comforting those who suffer. Let's have more dialogue and join our strength to make sure no one has to suffer again. Thank you.



## 한국 참가자 소개 Korean Participants

##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

## Religious Leaders' Meeting for National Reconciliation and Peace

## 1. 박남수(천도교 전 교령) Park Nam-Soo, Leader of Cheondoism

2023	(사)상생과평화 이사장	Chairman, Foundation for Mutual Survival and Peace
2018	삼일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 100주년 100인위원회	Member, 100th Anniversary Committee of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2015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상임대표	Standing Representative, Committee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Movement
2013	천도교 제55대 교령 취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종교인 평화회의(KCRP) 공동대표	Inaugurated as the 55th Leader of Cheondoism - Co-Representative, Korean Council of Religious Leaders - Co-Representative,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KCRP)
2010	강제병합100주년 한일시민대회 공동상임대표	Co-Chairman, Korea-Japan Citizens' Conference on the 100th Anniversary of Forced Annexation
2007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공동대표	Co-Representative, National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200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한국종교연합(URI-Korea) 상임대표 (~2017)	Co-Representative, Movement for Helping Our People - Permanent Representative (~2017), United Religions Initiative Korea (URI-Korea)
2005	6.15 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Co-Representative, South Korean Committee for Implementing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2004	(사) 동학민족통일회 대표상임의장	Chief Standing Chairman, Donghak National Unification Association
1999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 (25년 현재까지)	Member (to present, 2025), Religious Leaders' Meeting for National Reconciliation and Peace
1997	천도교 중앙총부 총무원장	Chief Executive, Central Headquarters of Cheondoism
1995	천도교 중앙총부 종의원의장 (3선) (~2004)	Three-term Chairman (~2004), Central Assembly of Cheondoism

## 2. 박경조(대한성공회 주교) Park Kyung-Jo, Bishop of the Anglican Church of Korea

학력	고려대학교 졸업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Education	성공회 신학원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MA) 뉴욕신학교 목회학 박사 (Dr.Ministry)	Graduated from the Anglican Theological Seminary Completed Master's Degree (M.A.) at Sogang University Earned Doctor of Ministry (Dr. Ministry) at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스위스 Ecumenical Institute 수료	Completed coursework at the Ecumenical Institute in Switzerland
<b>경력</b>	성공회 주교	Bishop of the Anglican Church of Korea
<b>Career</b>	성공회 전국의회 의장 주교	Presiding Bishop, National Assembly of the Anglican Church
	세계 성공회 평화대회 공동 대회장	Co-Chair, World Anglican Peace Conference
	중국의 공식 초대로 중국 교회 방문	Visited Chinese churches upon official invitation from China
	한국 기독교 협의회 회장	President,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CK)
	녹색연합 상임대표	Standing Representative, Green Korea United
	우리 민족 서로돕기 공동대표	Co-Representative, Movement for Helping Our People
	6.15 남북 위원회 공동대표	Co-Representative, South Korean Committee for Implementing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한국 종교인 연대 상임대표	Standing Representative, Korean Religious Solidarity
<b>서훈</b>	국민 훈장 동백장	Awarded the Order of Civil Merit, Dongbaek Medal
<b>Honors</b>		

### 3. 박종화(경동교회 원로목사) Park Jong-Hwa, Pastor Emeritus of Kyungdong Church

#### 학력 Education

- 1968** 한국신학대학 졸업 (신학사 Th.B.)  
Graduated from Korea Theological College (Bachelor of Theology, Th.B.)
- 1970**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신학석사 Th.M.)  
Graduated from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Master of Theology, Th.M.)
- 1986** 독일 튀빙겐 대학교 신학박사 학위 (Dr. Theol.)  
(논문 : *Das Ringen um die Einheit der Kirche in Korea / Tübingen 1986*)  
Doctor of Theology (Dr. Theol.) from the University of Tübingen, Germany  
(Dissertation: *Das Ringen um die Einheit der Kirche in Korea / Tübingen 1986*)
- 1996** 헝가리 Gaspar Karoli Reformed University/Budapest 명예신학박사 (Dr. h.c.)  
Honorary Doctor of Theology (Dr. h.c.), Gaspar Karoli Reformed University, Budapest, Hungary
- 2002** 헝가리 Debrecen Reformed University/Debrecen 명예신학박사 (Dr. h.c.)  
Honorary Doctor of Theology (Dr. h.c.), Debrecen Reformed University, Debrecen, Hungary

#### 교직활동 Academic Career

- 1985-1994. 9.** 한신대학교 교수로 봉직(기획실장, 신학과장, 평화연구소장 역임)  
Served as Professor at Hanshin University (held roles as Director of Planning, Chair of the Theology Department, and Director of the Peace Research Institute)
- 1993** (가을학기) 캐나다 Emmanuel College/Toronto University 초빙교수  
(Fall Semester) Visiting Professor at Emmanuel College,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 저술활동 Publications

- 주요 저서 Major Works
  1. J.몰트만 / G.바움/박종화 공저 J. Moltmann / G. Baum / Park Jong-Hwa (co-authors),

- Minjung: Theologie des Volks Gottes in Sudkorea, Neukirchen 1981
2. 박종화, 평화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 한국신학연구소, 1991.  
Park Jong-Hwa, The Theology of Peace and the Ecumenical Movement, Korean Theological Institute, 1991
  3. 박종화/윤응진 공저(한신대 평화연구소 편), 평화 - 그 이론과 실제, 삼민사, 1992  
Park Jong-Hwa / Yoon Eung-Jin (co-authors, Hanshin Univ. Peace Research Institute ed.), Peace - Theory and Practice, Samminsas, 1992
  4. 박종화, 주일마다 나누는 하늘양식.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기독교서회 2015  
Park Jong-Hwa, Heavenly Bread Shared Every Sunday: Worship and Sermons Following the Church Calendar,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2015
- 연구논문(100여 편 중 대표작) Representative Research Papers (out of over 100)
    1. Jong Wha Park, "Arms Transfers and Proliferation: The Case of South Korea," in The Arms Trade Today, WCC / CCIA, Geneva, 1993
    2. Jong Wha Park, "Protestantism and Postcolonialism in Korea," in Reformation. Legacy and Future, ed. by P. Bosse-Huber, S. Fernerod, T. Gundlach, G. Locher, World Council of Churches, 2015; (German ed.(독일어판) 500 Jahre Reformation: Bedeutung und Herausforderungen, TVZ/Sek/EKD, 2014; French ed.(불어판) Celebrer Luther ou la Reforme? 1517-2017, EKD/Sek/feps, 2014)
    3. 박종화, [기독교역사에 나타난 평화사상과 평화운동], 현대평화사상의 이해, 1992  
Park Jong-Hwa, "Peace Ideology and Peace Movements in Christian History," in Understanding Contemporary Peace Ideologies, 1992
    4. 박종화, [선교의 이론과 실천 - 역사적 변천과 발전과정], 기독교사상, 1992.6.  
Park Jong-Hwa, "Theory and Practice of Mission: Historical Changes and Developments," Christian Thought, June 1992
    5. 박종화, [세계 속의 한국교회], 2017 종교개혁 500주년 포럼, 2017  
Park Jong-Hwa, "The Korean Church in the World," 2017 Forum for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2017
  - 번역서 Translations
    1. 브라이덴슈타인 저 / 박종화 역, 인간화, 기독교서회, 1974.  
Breidenstein (author) / Park Jong-Hwa (trans.), Humanization,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4
    2. 칼 쿠피시 저 / 박종화 역, 칼 바르트, 한국신학연구소, 1972.  
Karl Kupisch (author) / Park Jong-Hwa (trans.), Karl Barth, Korean Theological Institute, 1972
    3. J. 몰트만 저/ 박종화 역, 정치신학 & 정치윤리, 기독교서회 2017 (외 5권)  
J. Moltmann (author) / Park Jong-Hwa (trans.), Political Theology - Political Ethics,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2017 (plus five other translated works)

#### 국내 활동 Domestic Activities

1985. 9.- 1994. 9. 한신대학교 교수 역임 Served as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1994. 9.- 1999. 11.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총회총무 역임  
General Secretary of the General Assembly,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PROK)
1998. 5.- 2003. 2. 대통령 통일고문 Presidential Advisor for National Unification
2003. 7.- 2005.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겸 종교분과 위원장



	Standing Committee Member and Chair of the Religious Affairs Subcommitte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NUAC)
2005. 7.- 2006.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 분과 위원장 Chair of the International Subcommitte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2006. 6.- 2009. 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President,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KOFIH)
2009. 8.- 2013. 11.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대회장> Chair of the Korea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10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1999. 12.- 2015. 12.	경동교회 담임목사 역임/원로목사 추대 Served as Senior Pastor of Kyungdong Church; appointed Pastor Emeritus
2014. 10.- 2018. 10	(재)연세대학교 재단이사 Board Member, Yonsei University Foundation
현재	(재)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재단이사장
Currently	Board Chairman, Graduate School of Practical Theology Foundation (사)평화와 통일연대 이사장 Chairman of the Board, Peace and Unification Solidarity
2011.12.- 2022.12.	(재)국민문화재단(국민일보) 이사장 Chairman of the Board, Kookmin Cultural Foundation (Kookmin Ilbo)

#### 국제 예큐메니칼 활동 International Ecumenical Activities

- 독일 뷔르템베르크주교회 총회(Württembergische Landeskirche/Stuttgart) 및 독일 서남 세계선교 본부(EMS/Stuttgart) <협동선교사>(1976.5-1981.8) 역임  
Served as a Cooperative Missionary for the Württemberg State Church (Stuttgart) and the Evangelical Mission in Southwest Germany (EMS, Stuttgart) from May 1976 to August 1981
-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1991년-2006년) 2회 역임  
Served two terms (1991-2006) as a Central Committee Member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 수상내역 Honors

2004	국민 훈장 모란장	Awarded the Order of Civil Merit, Moran Medal (Republic of Korea)
2008	독일연방공화국 십자공로훈장 (Bundesverdienstkreuz)	Awarded the Federal Cross of Merit (Bundesverdienstkreuz) by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4.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Ven. Pomnyun Sunim, Guiding Dharma Teacher of Jungto Society

법륜스님은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운동가입니다.

제3세계를 지원하는 구호 활동가이며, 인류의 문명 전환을 실현해가는 사상가이자 깨어있는 선승으로, 보살의 삶을 서원한 수행공동체 '정토회'를 세웠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수행을 바탕으로 한발 더 나아가 사회 변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정신은 인도 불가촉천민 마을에 학교와 병원을 열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 돕기 운동과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즉문즉설(卽問卽說)을 통해 세대를 넘나드는 인생의 멘토가 되어,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삶, 이웃과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Venerable Pomnyun Sunim is a distinguished peace activist, humanitarian leader, and awakened Zen master who has dedicated his life to spreading messages of peace and reconciliation. As the founder of the spiritual community Jungto Society, he has taken a vow to live the life of a bodhisattva, working tirelessly to support those in need around the world while promoting the transformation of human civilization.

Grounded in the practice of applying Buddha's teachings to daily life, Venerable Pomnyun Sunim has advanced beyond personal spiritual development to advocate for meaningful social change. This commitment has manifested in numerous humanitarian initiativ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schools and hospitals in India's marginalized communities, launching movements to aid starving North Korean compatriots, and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2002, through his "Dharma Q&A sessions," Venerable Pomnyun Sunim has served as a life mentor across generations, sharing wisdom about living free from suffering, achieving personal freedom, and creating lives that benefit both neighbors and the wider world.

### 주요 활동 International Ecumenical Activities

<b>1988</b>	정토회 창립 한국불교사회교육원, 한국불교사회연구소 설립	Founded Jungto Society; Established Korean Buddhist Social Education Institute and Korean Buddhist Social Research Institute
<b>1993</b>	정토행자 만일결사 정진 시작 인도 비하르주 동게스와리에 수자타아카데미 설립, 인도JTS 설립(~현재)	Began the 10,000-day prayer for Jungto practitioners; Established Sujata Academy in Dungeswari, Bihar, India; Founded JTS India (ongoing)
<b>1996</b>	(사)한국제이티에스 설립	Established Korea Join Together Society (JTS)
<b>2003</b>	필리핀 민다나오JTS 설립, 원주민 및 무슬림 지역 학교건축 (~현재)	Established JTS Mindanao, Philippines; Initiated school construction in indigenous and Muslim regions (ongoing)
<b>2005</b>	빈그릇운동 100만인 서약 캠페인	Empty Plate Movement: 1 million pledge campaign
<b>2008</b>	북한주민 아사를 막기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1 million signature campaign calling for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to prevent starvation
<b>2010</b>	4대강 생명살림 연대활동	Four Major Rivers life-preservation solidarity activities
<b>2012</b>	〈희망세상만들기〉죽문즉설 국내 300회 강연	〈Creating a World of Hope〉Dharma Q&A session: 300 domestic lectures
<b>2017</b>	전쟁 방지를 위한 한반도 평화선언 및 평화대회	Korean Peninsula Peace Declaration and Peace Conference to prevent war
<b>2019</b>	북한에 '옥수수 1만 톤 보내기' 캠페인 전개	'Send 10,000 tons of corn to North Korea' campaign
<b>2023</b>	2차 만일결사 1차 천일결사 시작	Commenced the first 1,000-day prayer of the second 10,000-day prayer
<b>2024</b>	부탄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 시작 (~현재)	Initiated Bhutan sustainable development project (ongoing)

### 현재 직함 Current Positions

정토회 지도법사	Guiding Dharma Teacher of Jungto Society
(사)에코붓다 이사	Board Member of EcoBuddha
(재)평화재단 이사장	Chairperson of Peace Foundation
(사)좋은벗들 이사	Board Member of Good Friends

(사)한국제이티에스 이사장 Chairperson of Korea Join Together Society (JTS)  
Join Together Society America 이사장 Chairperson of Join Together Society America

#### 주요 국제 수상내역 Major International Awards

2002. 8. 31 막사이사이상 평화와 국제이해 부문 Ramon Magsaysay Award for Peace and International  
2020. 10. 26 (막사이사이 재단) Understanding (Ramon Magsaysay Foundation)  
제37회 니와노평화상 (일본 니와노 37th Niwano Peace Prize (Niwano Peace Foundation,  
평화재단) Japan)

### 5. 김대선(원불교 교무) Kim Dae-Seon, Won-Buddhist Priest

**학력**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Won Buddhism at  
**Education** 동대학 동양대학원 수료 Wonkwang University; completed graduate studies at the  
same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Oriental Studies

**종교 간 활동** 한국종교인연대(Uri-korea) Co-Permanent Representative, United Religions Initiative  
**Interfaith** 공동상임대표 Korea (URI-Korea)  
**Activities**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Member, Religious Leaders' Meeting for National  
Reconciliation and Peace

**사회활동** 다문화인 활동지원, Support for multicultural communities  
**Social** 한국생명운동연대의 자살 예방 활동, Suicide prevention activities with the Korea Life  
**Activities** 나눔문화확산인 국민운동 참여 등 Movement Alliance  
Participation in national campaigns to promote a culture  
of sharing

### 6. 김홍진(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 Kim Hong-Jin, Catholic Priest of the Archdiocese of Seoul

#### 학력 Education

가톨릭대학교 신학부(학사) Bachelor's degree in The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서강대학교 환경신학대학원(석사) Master's degree in Environmental Theology, Soqana University

#### 경력 Career

1981 사제 수품 (천주교서울대교구)  
Ordained as a priest in the Archdiocese of Seoul (Catholic Church in Korea)  
공군 군종신부, 본당 신부(금호동 보좌, 구파발 주임, 발산동 주임, 문정동 주임, 쑥고개 주임)  
Served as an Air Force chaplain and parish priest (assistant priest in Geumho-dong, pastor in  
Gupabal, Balsan-dong, Munjeong-dong, and Ssukgogae parishes)

1990-1995 프랑스 Angoulême(앙굴렘) 교구 파견(Fidei Donum 사제)  
Dispatched as a Fidei Donum priest to the Diocese of Angoulême, France

1999-2005 교구청 근무(사회사목국장, 사회복지회장, 한마음한몸운동본부장)  
Worked in the archdiocesan office (Director of Social Pastoral Affairs, Chair of the Social

- Welfare Council, Director of the One Body One Spirit Movement)  
 고해성사 전담신부 Served as a dedicated confession priest
- 2000-200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Caritas Coreana) 총무  
 Secretary General of the Social Welfare Committee (Caritas Coreana),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 2000-2002**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회장  
 Chairman of the Council of Social Welfare Representatives of Korean Religions
- 2015**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대표  
 Co-Representative, Project Committee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Movement
- 2019-2022** 한국종교연합(URI Korea) 공동대표 Co-Representative, United Religions Initiative Korea(URI Korea)
- 2008-현재**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 2006-현재** Member (since 2008), Religious Leaders' Meeting for National Reconciliation and Peace  
 (사) 동지(해외입양인 지원/해외원조) 이사장  
 Chairman (since 2006), Nest (nonprofit supporting overseas adoptees and foreign aid)

## 스리랑카 참가자 소개 SriLanka Participants

### 다르마샹티 단체 Dharmashakthi Organization

#### 1. 마담파가마 아사지 마하나야(불교) Ven. Madampagama Assaji Mahanayaka Thero

저는 다르마샹티 종교간 그룹 회원들과 함께 전국적인 분쟁 상황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민족간, 문화간, 종교 집단 간의 조화와 연대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일하는 것에 항상 기쁨을 느낍니다.

I was able to take initiatives in these conflicting situations in the country at large together with members of Dharmashakthi Inter Religious group. I am always pleased to work towards in bringing harmony and Solidarity among the inter ethnic, cultural and religious groups.

**학력 Education** 박사 학위 (팔리어) Ph.D Degree (Pali)

#### **소속 단체 Post of Organizations**

- 국제불교연합회(IBC) 회원 - 불교 및 종교간 위원회  
Member of International Buddhist Confederation (IBC) - Buddhist and Inter Religious Committee Buddhist Confederation
-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INEB) 스리랑카지부 고문  
Advisor Sri Lanka Branch of International Engage Buddhist (INEB)
- 아시아평화불교대회 스리랑카지부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of Asian Buddhist Conference for Peace (Sri Lanka Branch)
- 다르마샹티 기구 회장 President of Dharmashakthi Organization

#### **분쟁 관리에서의 사회적 역할 Social Interaction in Conflict Management**

1. 마와넬라의 불교도-무슬림 분쟁  
Buddhist Muslim conflict in Mawanella
2. 탄티리말레의 불교도-타밀 공동체 분쟁  
Buddhist and Tamil community conflict in Thanthirimale
3. 말리가와타 불교도-무슬림 분쟁  
Maligawata Buddhist Muslim conflict
4. 트린코말리 코네스와람의 불교도-타밀 상인들 간 분쟁  
Conflict in Koneswaram Trincomalee among Buddhist and Tamil business personals
5. 몰라티부 칸다카두의 타밀족-싱할라족 간 분쟁  
Conflict among Tamil and Sinhala groups in Mullativuu Kandakadu
6. 암파라 무슬림-불교도 공동체 간 무후두 마하 비하라야 관련 문제  
Ampara Muslim and Buddhist community issue related Muhudu Maha Viharaya
7. 베루왈라의 무슬림-불교도 공동체 간 발생한 분쟁  
Conflict occurred in Beruwala among Muslims and Buddhist community.
8. 네곰보에서 예수상 설치 중 불교도-기독교도 간 발생한 분쟁  
Conflict occurred among Buddhist and Christians in Negombo while placing a statue of Jesus



## 2. Rev.R. 다르샤카 샤르마 바라드와즈(힌두사제) Rev.R. Darshaka sharma bharadwaj

사람을 섬기는 것이 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저는 평화와 조화, 공존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스리랑카 국민 간의 종교적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및 비정부 기관, 언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종교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힌두교의 진정한 비전과 지식을 다른 종교 신자들에게 그들의 학교, 사찰, 대학, 기관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최초의 젊은 힌두교 사제입니다. 저는 국제 평화 조화 행사를 위해 국제 플랫폼을 도입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가 간 평화와 조화를 증진하기 위해 주최한 말레이시아 주 회의에 초대되어 참석했습니다. 매년 태국에서 열리는 SAFORB 회의에 참석하여 사회적 평등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회적 평등, 언어, 종교, 문화적 신념 및 인권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사람들을 위해 사회정의를 위해 나섰습니다. 저는 많은 대사관 및 외교 지도자들과 위의 주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Service to man is service to God is my vision. I had served many insinuations to promote peace & harmony and coexistence. in present days. I do religious lecturers on government and non government institutions, media, and social media platforms to ensure religious harmony between the people of Sri Lanka. I am the first young Hindu priest who started to teach other religious believers about real vision and knowledge of Hindu religion in their schools, temples, universities, and institutions. I had invited international platforms to build international peace harmony events. I was invited to participate in Malaysian state conference organized by Malaysian Government to promote peace and harmony between nations. Every year I participate in SAFORB conference in Thailand I work for social equality. I voice up violations against social welfare, social equality, language, religious, cultural beliefs & human rights. many time I stood up for social justice not only for our country people also international people. I work with many embassy & diplomatic leaders above topics

<b>학력</b>	• 베다 연구 법학 대학 Law studies of university vedic studies
<b>Education</b>	
<b>직책</b>	• 힌두 최고 사제 Hindu chief Higher priest
<b>Position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적 아난다 시바 구루굴람 사무총장 secretary universal Ananda Siva Gurugulam</li> <li>• 다르마샷티 부총장 vice secretary Dharma shakthi</li> <li>• 시민의회 부의장 vice president people's Assembly</li> <li>• 철학 강사/사회운동가 philosophy lecturer/social Activists</li> <li>• 실론 힌두 협회 수석 사제 chief priest of All Ceylon Hindu Congress</li> <li>• 스리랑카 보편인권기구 종교문제 자문 consultant religious affairs of universal human rights organization of Sri Lanka</li> <li>• SAFORB(남아시아 인권 및 신념 포럼) 회원 Member of SAFORB (south Asian forum of Human Rights and beliefs)</li> </ul>
<b>현재 업무</b>	• 법률 자문 및 법률 보조원, 신학 강사
<b>Present work</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gal advisor &amp; legal assistant/ theology lecturer</li> <li>• 현재 평화와 사회적 조화를 위한 외교관으로 활동 중, 국가 종교 문제 담당 Present working as diplomat for peace and social harmony Religious issues of state</li> <li>• 국가 대통령상 수상자, 루드라 비나 악기 연주자, 하키 선수, 양궁 선수 National president award winner/ Rudra veena instrument player/ hockey player/ archery player</li> </ul>

### 3. 아누라 페레라(목사) Rev. Fr. Anura Perera

#### 학력 Academic Achievements

- 1990 인도 세람포어 대학 신학사(B.Th, 2등급)  
In 1990 I was awarded the Bachelor of Theology Degree (B. Th., Second Class Upper) by the Serampore College in India.
- 2001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교(트리니티 칼리지) 평화학 및 분쟁해결 전공 석사(M.Phil)  
In 2001 I was awarded the Post-Graduate Degree (M.Phil) in Peace Studies and Conflict Resolution by the University of Dublin in Ireland. (Trinity College)

#### 기타 이수 교육 Other Trainings Received

- 스리랑카 사회과학자협회 - '민족, 국민국가, 민주주의'에 관한 6개월 과정  
I have completed the six months course introduced by the Social Scientists Association of Sri Lanka on Ethnicity, Nation-State and Democracy.(Awarded a certificate)
- 독일 연합복음선교회 - '사실 조사 임무에 관한 합숙 워크숍'(필리핀)  
I have attended a residential workshop on fact finding missions held in the Philippines, organized by the United Evangelical Mission in Germany.(Awarded a certificate)
- Walk Through the Bible Ministries 주관 World-Teach 성경교사 구약 훈련 프로그램(콜롬보)  
I have completed the World-Teach Bible Teachers Old Testament Training Program organized by Walk Through the Bible Ministries in Colombo.(Awarded a certificate)

#### 학술활동 Academic Involvements

- 스리랑카 신학대학원에서 분쟁전환과 화해에 관한 외부 강사로 활동(준비한 강의가 교수진 승인 받음)  
I have served as an external lecturer on the subject of Conflict Transformation and Reconciliation at the Theological College of Lanka. (The course is prepared by me and got the approval of the faculty).
- 스리랑카 국제 누르 재단에서 시행하는 이맘 훈련 과정(젊은 이슬람 이맘 대상)의 자원 인력 중 한 명  
I am one of the resource persons for the Imam Training Course (for young Islam Imams) implemented by International Noor Foundation Sri Lanka.
- 2004-2005 분쟁해결 및 평화준비 대학원 디플로마 과정 강사로 활동(영국 브래드퍼드 대학교와 스리랑카 사회과학자협회가 공동 검증하고 수여)  
I have served as a lecturer for Post Graduate Diploma in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 Preparedness, jointly validated and awarded by University of Bradford, England and Social Scientists Association Sri Lanka. (A copy of the course hand book is available).2004/2005

#### 종교 간 활동 Inter-Religious Involvements

1. 1990년 JVP 반란 후반부에 마타라 지역은 분쟁의 희생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반란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스리랑카 기독교 국가위원회의 지원으로 자립지원 캠페인을 시작하여 약 100명의 과부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이루어졌으며, 후에 마타라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 간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In 1990 in the latter part of the JVP insurrection; Matara area was full of people victimized by the conflict. There were especially young widows who had lost their husbands due to the insurrection. With the support of the National Christian Council of Sri Lanka, we launched a self employment campaign from which about 100 widows benefited. This was done with the collaboration of other religious leaders; and later,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Matara, an Inter-Religious committee was formed.

2.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갈레, 마와넬라, 콜롬보, 베루왈라, 푸탈람에서 발생한 여러 종교 및 민족 간 충돌에 개입하여 분쟁 당사자들을 화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Together with other religious leaders, I was able to intervene with a number of religious and ethnic clashes in Galle, Mawanella, Colombo, Beruwala and Puttalam to reconcile conflict parties.
3. 종교 간 평화재단(IRPF)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트린코말리 마을의 부처상 문제에 대해 두 민족 집단을 함께 모아 대화를 시작하는 촉진자로 개입했습니다.  
Together with other religious leaders of Inter-Religious Peace Foundation (IRPF), I intervened as a facilitator to bring two ethnic groups together and initiate a dialogue on the issue of the Buddha statue in Trincomalee town.
4. 다르마샹티 기구 지도자들과 함께 네곰보에서 그리스도상 문제로 촉발된 불교도-가톨릭 충돌에 개입했습니다.  
Together with Dharmashakthi Organisation leaders we intervened in the Buddhist-Catholic clashes interrupted on the issue of Christ's statue in Negombo.
5. 다르마샹티 기구 지도자들과 함께 말리가와타에서 발생한 불교도-무슬림 충돌에 개입했습니다.  
Together with Dharmashakthi Organisation leaders we intervened in the Buddhist-Muslim clashes interrupted in Maligawatta.
6. 다르마샹티 기구 지도자들과 함께 코타갈라에서 발생한 싱할라-타밀 충돌에 개입했습니다.  
Together with Dharmashakthi Organisation leaders we intervened in the Sinhala-Tamil clashes interrupted in Kotagala.
7. 소마 테로 스님 서거 직후 극단주의 불교도들에 의해 모든 기독교인과 교회를 대상으로 벌어진 일련의 종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회과학자 및 언론인들과 함께 불교도-기독교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Together with social scientists and journalists we initiated a Buddhist - Christians dialogue when a chain of religious violence took place against all Christians and Churches by extreme Buddhists soon after the death of Ven. Soma Thero.
8. 소마 테로 스님 서거 직후 TNL TV "자나한다" 프로그램에서 교회에 대해 제기된 비난에 맞서 스리랑카 전체 교회를 변호하기 위해 TV에 출연했습니다.  
I appeared on TV to defend the entire church of Sri Lanka against the accusation leveled against the church in "Janahanda" TNL TV program, soon after the death of Ven. Soma Thero.
9.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종교 간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칸디 감리교 역사상 처음으로 말와타, 아스기리야 장로, 디아와다나 nil라메, 칸디 주교, 쿠루네갈라 주교, 카타라가마 힌두 사원장, 마하이야와 모스크 이맘이 함께 참석하도록 했으며, 어려운 가정에 건조 식량 200개를 배포했습니다.  
Together with Church leaders we organized an inter-religious Christmas program and was able to get Anu Nayaka Theros of Malwatta and Asgiriya chapters, Diyawadana Nilame, Bishop of Kandy, Bishop of Kurunegala, Chief incumbent of Kataragama Hindu Temple and Islam Imam from Mahaiyawa Mosque attending the program together,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Kandy Methodism; we distributed 200 packets of dry rations to needy families.

#### 사회 및 정치 참여 Social and Political involvements

1. **2003-2006** 스리랑카 80개 구역 사무국 수준에서 시행된 People's Forum이라는 풀뿌리 프로그램에서 컨설턴트 겸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I have served as a consultant cum resource person in the grass root level program called People's Forum implemented in 80 divisional secretariat levels in Sri Lanka.
2. **2006-2008** LTTE와 현 정부 간 폭력을 중단하고 전면전으로 가는 것을 자제하도록 종교 대표단을 중재했습니다.  
Facilitated a religious delegation to intervene between LTTE and the present Government to stop violence and refrain from going to total war.
3. **2017-2019** 다르마샹티 기구가 시작한 종교 심포지엄 및 기타 모든 활동의 진행자 중 한 명입니다.

I am one of the facilitators to religious symposiums and all other activities initiated by Dharmashakthi Organisation.

4. 분쟁 전환에서의 비폭력 개입에 관한 소책자 "아힘사"를 썼는데, 이는 모든 People's Forum에서 사용되었습니다(싱할라어).

I have written the booklet Ahimsa on nonviolent intervention in conflict transformation which was used in all People's Forums. (In Sinhala).

5. 많은 평화 및 화해 단체에서 여러 주요 직책을 맡았으며, 현재 다르마샹티 기구의 집행 간사이자 콜롬보 지구 종교 간 위원회 소집자입니다.

I have hold number of key positions in many peace and reconciliation organizations and currently I am the Executive Secretary of Dharmashakthi Organisation and convener of Colombo District Inter-Religious Committee.

6.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홍콩, 인도, 독일에서 열린 많은 평화 및 화해 국제 회의에서 감리교회와 다르마샹티 기구를 대표했습니다.

I have represented Methodist Church and Dharmashakthi Organization in many peace and reconcil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s in U.S.A, U.K. France, Italy, Australia, Philippine, Singapore, Hong Kong, India, and Germany.

#### 4. 아하메드 나즈무딘 모하메드 피르도스(무슬림) Ahamed Najmudeen Mohamed Firdous

##### 학력 Academic Achievements

- 2003 인도 랄펫, 자미아 만바울 안와르 아랍어 대학으로부터 모올라비 알림 사나투(No.1254) 칭호 받음  
In 2003 I was awarded the title of Moulavi Aalim Sanathu (N0.1254) by the Jamia Manbaul Anwar Arabic College, Lalpet in India

##### 기타 이수 교육 Other Trainings Received

- 스리랑카 국가평화위원회가 주관한 "과도기 정의 매커니즘을 통한 화해 증진" 워크숍 수료  
I have completed the Workshop on Promoting Reconciliation through Transitional Justice Mechanisms Organized by National Peace Council of Sri Lanka
- 법무부 산하 중재위원회에서 주최한 "조정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수료 (수료증 수여)  
I have completed the Workshop on Mediation Training Program organized by Mediation Boards Commission under Ministry of Justice. (Awarded a certificate)

##### 종교 간 활동 Inter-Religious Involvements

1. 다르마샹티 기구의 지도자들과 함께 스리랑카에서 그리스도 동상 문제로 촉발된 불교도-가톨릭 충돌에 개입  
Together with Dharmashakthi Organisation leaders we intervened in the Buddhist-Catholic clashes interrupted on the issue of Christ's statue in Sri Lanka.
2. 다르마샹티 기구의 지도자들과 함께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불교도-무슬림 충돌에 개입  
Together with Dharmashakthi Organisation leaders we intervened in the Buddhist-Muslim clashes interrupted in Sri Lanka
3. 다르마샹티 기구의 지도자들과 함께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불교도-타밀인 충돌에 개입  
Together with Dharmashakthi Organisation leaders we intervened in the Buddhist-Tamil clashes interrupted in Sri Lanka.

##### 사회 및 정치 참여 Social and Political involvements

1. 2013년부터 법무부 산하 전국 평화 판사 중 한 명으로 재직 중

I have been serving as one of the All-Island Justice of Peace since 2013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2. 2016년 국가 공존, 대화 및 공용어부 위원으로 활동

I have served as one of the members for Ministry of National Co-Existence, Dialogue and Official Languages in 2016.

3. 자유인권기구에서 전국 수석 후원자로 임명

I have been appointed as Chief Patron All island by the Freedom Human Rights Organization.

4. 종교 간 활동을 인정받아 독립인권기구로부터 '끼르티 스리 마나바 히타바디' 명예 학위 수여

I have been awarded an honorary degree named 'Keerthi Sri Manava Hithavaadhi' by the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 in recognition of my interfaith work.

5. 2005년부터 올실론 자미야툴 울라마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2023년 콜롬보 동부 지역 회장으로 임명

I started serving as a member of All Ceylon Jamiyyathul Ulama in 2005, and in 2023 I was appointed as the Divisional President of Colombo East.

6. 2019년 무슬림 종교문화부로부터 마스지둔 누르 마알 마드라사(모스크) 의장으로 임명

I was appointed as the Chairman of Masjidun Noor Ma'al Madrasa (Mosque) in 2019 by the Department of Muslim religious and Cultural Affairs.



국제화해학회 컨퍼런스

화해와 평화를 위한 아시아 종교간 대화

발행일 | 2025. 7. 15

발행처 | (재)평화재단

© 2025 평화재단

※ 이 자료집은 비매품입니다.

IARS SEOUL CONFERENCE 2025



카카오톡채널

02-581-0581

<https://www.pf.or.kr>

[staff@pf.or.kr](mailto:staff@pf.or.kr)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1길42 10층 평화재단